

2003 겨울호

서른아홉



#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http://www.kclf.org>

## 정상을 향하여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보험과장

●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12월 8일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마도 시골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눈 내린 아름다운 겨울모습이 그 자태를 더욱 뽐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환아 그리고 가족 여러분도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면 기분이 즐거우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픔 때문에 가슴아파하기도 합니다. 단지, 즐겁고 슬픈 것들이 일정한 순서 없이 개인마다 다르게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조금 일찍 힘든 일이 찾아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더 크고 기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신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살아가는 의미도, 남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애정도 누구보다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즐기롭게 극복합니다.

등산을 할 때에도 처음 시작하는 10여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꾸준히 나아가면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정상을 정복하게 되고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의 모습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환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곤경을 힘차게 헤쳐 나온 사람만이 저 광활한 대지에 나무를 심고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즐기롭게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여러분이 하루 빨리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곳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다 함께 손잡고 저 정상을 넘어 광활한 대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 진재엄마의 기도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배엽성 뇌종양(악성)진단을 받고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진재 엄마입니다.

2001년 5월 아이가 경기를 하고 혀에 마비가 왔을 때, 스쳐 가는 소아풍이려니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고 교수님께서 간질성 경기일 수 있으니 MRI와 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진재를 업고 MRI필름을 보는데 큰 덩어리가 보이더군요. 대뇌의 약 1/4를 차지할 만큼 커져 있었죠. 그때는 뇌종양이 무슨 병인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단지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에 겁을 먹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흘렸답니다. 진재는 지금도 가끔 그때 엄마 왜 울었냐고 묻는답니다. 아마도 엄마가 울고 아빠의 인상이 굳어졌으니 겁이 났었나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걸 보면요.

뇌종양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것도 악성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는 30분 거린 집과 병원을 며칠동안 울면서 오갔다고 하더군요.

마음 어린 남편이 혼자 마음을 다스리느라 그랬나봅니다. 저희 앞에선 눈물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이가 잠들면 복도에 나와 혼자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구요.

진재는 2001년 5월에 한번, 2002년 5월 재발해서 또 한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습

니다. 첫 수술 후 암에 좋다는 재료들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년만에 재발하자 허탈하고 겁이 나더군요. 두 번째 수술은 짧은 수술이고, 첫 번째 큰 수술도 잘 견뎌냈기에 걱정을 덜 했는데 수술 후 이틀만에 마비가 왔습니다. 마비가 되려면 아이는 고향을 지르며 몸이 뻗뻗해지고 의식을 잃었



어요.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는 자꾸 마비증상이 나타났죠. 마지막 마비 때 저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이 저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살려 달라고, 대신 절테리고 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이틀만에 안정을 찾았지만 턱에 마비가 덜 풀려 지금도 왼쪽으로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재발한다면 정말 아이가 견뎌줄지 자신이 없습니다. 매달 코피가 나가거나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얘기를 하니 혹시나 또 재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죠. 그리고 주위에서 치료 중에 아이들

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볼 때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 원인불명의 부종, 두통 등 제 몸도 정상이 아니고, 아빠도 스트레스로 두통에 시달리고 있죠. 이것은 비단 저희 가족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전 요즘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면역성이 약한데' 하는 생각에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진재가 건강할 때 세상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어린이날엔 한사랑의집 도움으로 청와대 구경을 했는데 진재가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부산 모터쇼, 문화체험 등 여러 행사들에 꼭 참가하고 있어요. 아이가 행사만 갔다오면 자랑하느라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회 형제캠프에 큰 아이가 참석했어요. 동생이 아프다보니 언제나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아이에게 큰 추억거리가 하나 생겼답니다.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아들과 보호자 여러분 우리 힘내요.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땐 막막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더 힘이 나네요. 함께 병과 싸우고 있는 동지들도 있고 내 아이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용기가 납니다. 우리 힘내요. 화이팅!!

# 출산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기적, 제대혈 기증!

제대혈이란 신생아 분만 후 태반과 탯줄의 혈관에서 얻을 수 있는 혈액을 말합니다. 제대혈에는 성인의 골수에 비해 혈액세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상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제대혈 기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새로운 탄생과 함께 버려지던 아기와 엄마의 소중한 탯줄 속에는 새생명을 살릴 조혈모세포가 있습니다. 제대혈에서 분리되는 조혈모세포는 골수이식 때 사용하는 조혈모세포와 동일하게 소아암을 비롯한 선천성면역결핍증 등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습니다.

한해 조혈모세포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백혈병을 포함하여 약 35만 명. 다른 사람의 골수 또는 제대혈을 기증 받아야만 치료의 기회가 있지만, 기존의 골수와 제대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는 그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환자들이 이식을 위한 조혈모세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4,000단위의 제대혈이 공여용으로 보관(2003년 2월 기준)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용 제대혈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숫자의 1/3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족용 제대혈은행은 현재 가족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때 보관하는 것은 활용도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의 장래를 위하여 보험용으로 보관하는 목적이려면 오히려 기증을 통해 공여용 제대혈은행에 보관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할 경우, 적합한 비혈연간의 제대혈을 찾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공여용 제대혈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제대혈 기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메디포스트(주)의 후원을 받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혈모세포 풀(Pool)을 조성하기 위한 제대혈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제대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된 제대혈은 오염도, 조직적합성 항원, 세포 유해수 등 34개의 검사를 거쳐 보관되며, 제대혈의 데이터는 한국골수은행협회 내 중앙제대혈데이터 센터를 통해 의료진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랑의 실천, 제대혈 기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제대혈 기증 캠페인기간

2003년 11월 15일 ~ 2004년 2월 15일

## ◆ 제대혈 기증문의

기증대표전화 031-272-6866

인 터 넷 [www.kclf.org](http://www.kclf.org)

[www.medi-post.co.kr](http://www.medi-post.co.kr)

또는 다니시는 산부인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대혈 기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캠페인기간 동안 출산예정인 산모가 최소 출산 2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대혈 기증은 순수한 기증행위입니다.** 보관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의 아이를 위해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처럼 기증하신 제대혈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의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에 관하여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첩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 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합니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2003년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 제 요 건 (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 첫째,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 둘째,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공 제 금 액

-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1인에 연 100만원 공제**(2001년 이전은 50만원 공제)
  -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봉이 15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 결정세액'이 자신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만원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3만원이므로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감안하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실익이 없습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 • 방 법1

www.koreatax.org 접속 → 연말정산 click → 연말정산 때 더 낸 환급도우미 click → 암 등 중병환자환급신청 click →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절차 중 '병원공문 출력하어'를 click → 필요한 양식(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 발급 공문)을 출력 → 장애인 증명서 작성(작성방법은 양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 장애인증명서와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환급신청

### • 방 법2

각 우체국 한사랑의 집 내에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이용이 편리하실 경우, 직접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 편지.. 수학문제.. 피아노



### 2003년 11월 22일 호암아트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다.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단원들 중에 완치자 김명환씨가 있었다.

### 1996년 2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낯선 땅에서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는 믿기 어려운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리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선 백혈구 수치를 의심하였다. 그 길로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귀국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진단을 받고 난 뒤,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치료에 대한 걱정도, 좌절도...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그저 편한 마음으로 치료과정을 따르자”였다. 겉으로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 다짐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득문득 두려움으로 몰고가는 생각들이 떠오를라치면, 그는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치료초기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에 전념하였다. 편지 쓰기가 시들해질 즈음엔 수학문제 풀이에 집중하였다. 별다른 생각없이 공식대로 풀어 가면 답을 던져주는 수학문제를 풀다보면 잡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하루하루도 빨리 지나갔다. 퇴원 후 집에 있는 동안에는 피아노연주에 전념하였다. 이 세 가지는 치료기간동안 그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의 치료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다른 환아들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치료중 맹장염이 발병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약물로써 치료를 마쳤다. 그는 국내에선 세 번째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았다.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저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과정에 임하였다. 골수검사의 극심한 통증, 맘껏 먹지 못하는 고통...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그는 처음에의 다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맨스그룹 ‘클론’의 팬이다. 치료당시 ‘클론’의 한 히트곡 노랫말은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 2003년 12월 어느 날...

재단의 신촌 심터로 그를 초대했다. 주저 않고 한걸음에 심터를 찾아온 그는 다부진 체격에 밝고 선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완치자로서 재단의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던 중이어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003년 12월 되돌아본 그의 투병세월 속에는 실망과 좌절보다는 밝음과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 김명환

1982년 9월 17일생

1996년 2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1997년 6월 치료종결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그 노랫말은 그의 다짐을 지켜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 바로 음악이다. 그의 음악 이야기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오지혜 선생님... 그에게 첼로를 소개해주셨고,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분이다. 그때 알게된 첼로는 지금도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악바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치료를 마친 후,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전교 회장의 역할까지 거뜬히 소화해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교내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현재 삶을 통해서 치료에 임했던 자세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병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했던 마음이 짐이 있었기에 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내일을 기다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밝음이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밝음이 전해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씩씩한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 심터에서는...

## 문화체험의 계절

###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شطير식구들에게 올 가을은 풍성한 문화체험의 계절이었습니다.

'진시황 미공개유물전' 관람에, 이천도자기체험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관람까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극단 사다리의 배려로 '벌거숭이 여왕님'을, 극단 미추의 배려로는 '마당놀이 이춘풍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 두 극단에서는 지난 여름 '세가지 숲이야기'와 '정글이야기'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연관람 연결은 레스토랑 長의 지영랑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여러 후원자님들 덕택에 심터 식구들은 모처럼 나들이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공연을 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심터 식구들을 불러주시는 극단 미추와 사다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조혜린 사회복지사 >

###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지난 10월 12일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돌아본 순천 고인돌공원...

넓게 펼쳐진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인돌과 움막들을 보며 신기해하였고, 보물찾기 시간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다니느라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순수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도착한 곳은 보성 녹차밭이었습니다. TV에서 이곳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아쉬움을 남기며 다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연되어 비록 울포해수욕장을 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지만 멋진 자연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2003 광주 헌사랑의집 문화체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정 옥 사회복지사 >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아직도 10월 문화체험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처음으로 물레를 돌리며 신이 난 아이들, 물레의 부드러운 촉감이 아직도 느껴진다며 또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았답니다.

며칠 전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가 도착했을 때 모두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들 때는 그냥 찰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멋진 작품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이번 문화체험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뽑았던 것이 연날리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연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만든 연을 날린 시간들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못내 아쉬워 집 옥상에서 다시 한번 날려봤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박미주 사회복지사 >





### 완치메달 목에 걸고~

작년 12월에 실시되었던 완치잔치 행사가 올해는 동아대학교의료원과 공동주최로 조금 빨리 열렸습니다.

치료가 끝난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여 완치메달과 상장을 받으며,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치료중인 아이들에게 희망과 완치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완치잔치 행사에 올해는 연예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구덕운동장에서 시행하였던 이번 행사에 조인성, 장우혁, 김수로, 서동균 등 유명 연예인들이 함께 하여 아이들에게 완치메달을 걸어주고, 동아대학교의료원 직원들과 함께 축구시합을 가졌습니다. 병실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안아주던 그들의 모습에서 친근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메달을 받아 볼 수 있을까 꿈만 같았던 아이들...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 주었던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려했던 아이들과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와 진행을 함께 담당해주셨던 별난아저씨와 그 식구들... 모두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이전 준비중인 훈 사랑의집의 리모델링을 전액 무료로 해주시는 (주)유림건설(회장 김양수)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편리한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며 너무도 성실성의껏 공사를 해주시는 유림건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근사한 훈 사랑의집이 탄생할 것입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 박미주 사회복지사 >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 진정한 감사를 알려준 친구들

임 성 자

종이접기 자원봉사자



드르륵 드르륵...

무슨 소리인가하면 아이들이 링거병을 밀면서 종이접기 교실로 들어오는 소리다. 내가 이렇게 병원친구들과 종이접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째다. 손에는 링거를 꽂고 입에는 마스크를 한 채 종이접기 방을 들어서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화사한 웃음을 웃으시며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신다.

안녕하세요!

나와 아이들, 또한 어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마치면 아이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오늘은 무얼 만드나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쉴 새 없는 아이들의 궁금증은 내가 수업을 시작해야만 조용해진다. 링거가 꽂힌 손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접을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2주에 한번씩 나는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 병동에 수업을 나간다. 그 시간은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며 진정한 봉사를 하는 기쁜 시간이다.

항상 시간에 쫓겨 바쁘게 하루 하루를 생활하는 나는 병원에서의 종이접기 시간이면 내게 언제 고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기쁨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 나와 내 아이들의 건강함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한시간이 왜 그리 짧은지 가르치는 나도, 배우는 아이들도 너무 짧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긴 시간을 병원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은 물론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보다도 더 기쁘게 수업을 받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더욱 보람을 느낀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잘 것 없는 내가 이렇게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한 나와 수업하는 아이들이 하루 빨리 완치되어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다.

임성자 선생님께서는 2001년도부터 재단과 인연을 맺으신 후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종이접기 지도를 해주고 계신답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꾸준히 봉사해주시는 임성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 한뜻후원자 소식

###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2003. 9. 1. ~ 2003. 11. 30.)

정복례 김영환 이경원 구분섭 박은원 이경숙 윤미선 배윤진 김영출 이지원 김장범 조운정 박성만 장진형 최창수

##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입니다. (2003. 9. 1. ~ 2003. 11. 30. / 후원등록순입니다.)

강갑조 강성미 강영욱 강영자 강영화 강종순 강창영 강천석 강항자 강혜자 강호엽 고영진 곽경림  
 광신희 광정이 구막순 구영미 권기식 권은경 권정순 권지은 김경애 김경옥 김경임 김경임 김경자  
 김경준 김경환 김 권 김규성 김기옥 김덕원 김도문 김동현 김두희 김명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현  
 김민숙 김민정 김민주 김복순 김봉연 김삼수 김상대 김상제 김선영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률  
 김성자 김성자 김성현 김수진 김수천 김순덕 김순자 김순홍 김순희 김승수 김아영 김아정 김영덕  
 김영락 김영숙 김영이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용두 김은영 김은희 김인경 김인숙 김인순 김장기  
 김재경 김재엽 김재환 김정득 김정미 김정옥 김정화 김정희 김주희 김지운 김지은 김진련 김진석  
 김진한 김철근 김필균 김필순 김학래 김현미 김현진 김현희 김형택 김혜경 김혜령 김효열 김희정  
 니상숙 남연정 남홍규 노상호 노성득 류경숙 류미희 류안석 류영화 문두호 문종화 문현옥 민명식  
 박경현 박경호 박근숙 박근철 박덕남 박돌순 박명수 박명희 박미숙 박미옥 박미혜 박미희 박병순  
 박선화 박숙희 박연옥 박영수 박영숙 박영태 박영혜 박옥분 박옥순 박윤자 박은연 박재영 박재관  
 박정현 박정희 박종임 박주식 박지영 박진경 박향근 박현선 박혜인 방장애 배민숙 배상희 배해숙  
 배현수 백명기 백홍숙 변미경 빈인선 서미영 서봉애 서진호 성경근 성맹철 성정림 성차연 성환일  
 손두수 손선근 손수정 손영옥 손지경 손현정 송금주 송기순 송미란 송보현 송은연 송해규 신귀화  
 신남숙 신동길 신동주 신봉주 신삼철 신순옥 신왕운 신종범 신지원 심경인 심명구 심성보 안광현  
 양경옥 양미경 양희태 어태석 예희형 오승엽 오연옥 오정미 오창은 오형석 오혜숙 옥천규 왕영애  
 우영숙 우한웅 원호석 위종갑 유경민 유선옥 유영숙 유태종 윤경희 윤명선 윤명호 윤봉화 윤옥희  
 윤응진 윤지영 윤평련 윤혜경 윤홍심 윤희숙 이경화 이귀선 이명지 이문식 이문자 이미령 이미자  
 이방숙 이병주 이상목 이수진 이숙엽 이순이 이순점 이영주 이영희 이옥희 이원익 이윤경 이윤자  
 이은희 이재륜 이정엽 이정옥 이정우 이정은 이제선 이종식 이주상 이종석 이지현 이창훈 이철수  
 이현숙 이현정 이현준 이혜경 이환규 이희옥 인상교 임기연 임상택 임선경 임성기 임성미 임성숙  
 임성화 임순자 임향란 장문희 장병기 장연옥 전기현 전대홍 정경덕 정경숙 정경하 정계순 정기호  
 정난주 정문호 정성숙 정세갑 정순남 정순조 정영애 정영희 정우철 정은경 정정인 정종민 정철교  
 정춘희 정태영 제금자 제은숙 조경미 조경숙 조병래 조복남 조봉국 조봉재 조숙남 조영희 조운경  
 조은진 조울수 조재신 조철석 조현주 주성자 진종기 차순덕 차유은 차정인 최둘리 최명근 최선주  
 최세영 최윤영 최윤희 최은정 최인향 최지영 최철규 최홍림 표경숙 하봉자 한규원 한상남 허현숙  
 홍석우 황미옥 황병성 황성권 황영희 황정임 황화영

◆ 부산지역 체신청에서 단체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 11.30 현재까지 968분이 수호투사로 가입해주셨습니다.)

◆ 수호투사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http://www.kclf.org/) 후원안내/명예의전당)

### 후원계좌 안내

#### ◆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 012989-01-003327(우체국)
- 090-000260-04-015(기업은행)
- 001-01-2353-890(국민은행)
- 029-01-176943(농협)

#### ◆ 예 금 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사랑이 모이는 곳

## 1 코스닥위원회 방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2003년 9월 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코스닥위원회의 허노중 위원장님께서 추석을 맞이할 소아암 가족들을 위해 양손에 커다란 한우세트를 들고 서울 한사랑의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며 소아암 아이들을 위하여 써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지는 못하였지만 코스닥 위원회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훈훈한 정이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2 삼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3년 11월 23일. 호암아트홀에서는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삼성그룹의 순수아마추어 연주단체로 시작한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들은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모두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첫 연주회를 소아암어린이 돕기를 위해 연 만큼 마음 또한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몹시 불었던 이날의 연주는 소아암 가족들의 추위를 모두 녹여버릴 만큼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참석했던 소아암 가족 모두는 오케스트라가 보여준 열정과 희망을 가슴에 안고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창단 연주회를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열어 주신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3 삼성 SDS마라톤



중앙일보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잠실종합운동장에 마음 따뜻한 삼성SDS의 자랑스러운 마라토너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1M를 달릴 때마다 1원씩 적립, 땀방울 가득한 모금을 소아암 친구들의 치료비로 지원하는 삼성SDS 직원분들의 멋진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삼성SDS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소아암 친구들이 희망을 갖고 치료해 언젠가 삼성SDS의 직원분들처럼 멋지게 마라톤을 할 수 있게 될 날을 그려봅니다.

## 4 하나증권(하나사랑회)

하나증권에서는 병환이와 한결이에게 쌀쌀해진 가을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왔습니다.

하나증권과 하나증권의 동호회인 '하나사랑회'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우리 친구들의 치료비...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10월 27일이었습니다.

병환이와 한결이 모두에게 하나증권의 사랑이 전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 5 네오위즈(세이클럽)

아침부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기 시작한 11월 7일.

네오위즈(<http://www.neowiz.com/kor>)의 아름다운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오위즈의 세이테마에서 글을 쓸 때 생기는 테마 포인트 10점을 기부하면, 세이클럽이 100원으로 전환한 기금과 네오위즈의 분들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기금을 모아 소아암 친구들의 치료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이클럽의 많은분들이 한혈증을 모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땀흘려주신 네오위즈와 세이클럽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6 오로라월드

날고 싶은 소망을 가진 꿈인형 '위시왕'을 출시한 오로라월드(주)(대표이사 홍기우)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억원 상당의 선물을 기증하셨습니다. 기증해 주신 인형들 덕분에 각 병원의 송년잔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날고 싶은 소망을 가진 꿈인형 '위시왕'처럼 우리 소아암 친구들도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으면 합니다.

## 천사와 함께 한 날이



가을 단풍이 한창 무르익던 지난 10월 17일 버스를 타고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재에 모여 출발하였는데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지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친구들은 끝말잇기 놀이를 통해 금방 어색함을 극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이천을 향했습니다.

세계도자전시장인 이곳에는 정말 신기한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케익모양 도자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방대 모양의 전시장에서는 도자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가족들끼리 멋진 포즈로 사진도 찰칵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도자기 상품 전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단연 아기돼지 모양의 공기들이었지요. 이곳 저곳 둘러 보기를 마친 후에는 케리커처 화가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얼굴을 예쁘게 그려 액자에 담아 주셨는데, 모델이 되어 있는 동안 친구들마다 무척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20여분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완성된 작품은 실

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순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 흙 빚기를 시작하였는데, 물컵, 날찍한 쟁반, 돌돌 말아 감아 올린 연필꽂이 등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을 완성하여 멋진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환아 가족들이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도자기 체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삼성전자 기흥 사회봉사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 특별후원 환아 소개 (2003. 9. 1. ~ 2003. 11. 30.)

### 차카게살자 기금 6,000,000

김영민(재생불량성빈혈/동산의료원/대구)  
송준림(횡문근육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 한 사랑기금 28,000,000

박현음(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정부성모병원/경기)  
최세정(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조무원(중증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기)  
김은빈(급성림프구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병원/제주)  
임진경(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북)  
강병관(판코니빈혈/서울대학교병원/서울)  
최재성(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김광진(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북)  
이만세(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경남)  
김준호(급성골수성백혈병/인천길병원/인천)  
김성호(급성골수성백혈병/의정부성모병원/경기)  
신선화(림프종/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도수정(급성림프구성백혈병/울산대학교병원/울산)  
양혜원(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전남)

### 이무영 1,000,000원

김명준(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모태산부인과 1,500,000원

김정근(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청)

### 삼성SDS마라톤 17,000,000원

신현주(급성골수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전남)  
김수민(뇌종양/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  
임민지(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대전)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000,000원

남덕우(급성림프구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  
유루아(신경모세포종/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이레기금 2,000,000원

박진우(횡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황태영(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 세이클럽(네오위즈) 12,600,000원

정지영(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장한별(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 (주)CJ홈쇼핑 30,000,000원

김혜빈(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경북)  
박기범(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서울)  
허진영(급성골수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병원)

### (주)에스콰이아 2,000,000원

정희련(유잉육종/신촌세브란스병원/경기)

### (주)선익시스템 443,140원

이중복(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하나증권/하나사랑회 5,000,000원

이한걸(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충천)  
민병환(만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충남)

#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황담이(여/만 5세)**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3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김형주(남/만 7세)**  
중증판코니빈혈/전남대학교병원  
2003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윤다희(여/만 9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3년 2월 동종골수이식시행예정



**김지성(남/만 2세)**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3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이창원(남/만 2세)**  
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3년 11월 동종골수이식시행



**이채령(남/1개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1월 제대혈이식시행예정



**이채연(여/만 9세)**  
급성골수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3년 11월 동종골수이식시행



**정혜수(여/만 12세)**  
급성혼합성백혈병/성모자애병원  
2003년 12월 제대혈이식시행



**홍민혁(남/만 3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3년 11월 제대혈이식시행



**정상현(남/만 1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3년 12월 제대혈이식시행



**김정근(남/만 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3년 11월 제대혈이식시행



**양애원(여/만 10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제대혈이식시행예정



**김광진(여/만 3세)**  
연소형단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1월 동종골수이식시행예정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3. 11. 30. 현재)

참여후원자 : 2,749명    구좌수 : 12,423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3. 9. 1. ~ 2003.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514-07-0175564)

광주은행(200-107-315315)

국민은행(031-01-0414-356)

권성애 김병홍 김혜리 백윤아 원승욱 이경원  
한상남 한상현

기업은행(090-000260-04-022)

권은의 박현숙 장민정 진원산업

농협(029-01-170940)

김미라 김영석 김하나 신무경 임미영 전정임  
황진성

대구은행(004-05-179828-001)

김해진

부산은행(070-01-021379-8)

김경숙 이여주

신한은행(394-01-000694)

김지호 이중석 주선혜

외환은행(141-22-00799-6)

이지영

우리은행(112-04-112571)

김상현 김지선 김혜원 박준엽 백현숙 변주연  
이은영 이혜진

우체국(012989-01-003313)

박현수

제일은행(225-20-385050)

김병희 배정희

조흥은행(367-01-192434)

김지연 박소연 양윤선 우초롱

하나은행(144-121835-00105)

김현화 이은서

한미은행(100-59711-251)

홍현정

CMS 제주은행

김경아

CMS 전북은행

최은례

### 천사백 후원자님도 CMS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MS란 후원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후원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를 재단에 알려주시면, 재단에서 후원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 ■ CMS를 신청하시면 이리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신청을 원하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 사랑의 모음터

## ◆ 사랑의 헌혈증서 (2003. 9. 1. ~ 2003. 11. 30.)

강슬기(22) 강태윤(50) 권진욱(5) 김동혁(175) 김상현(4) 김희성(100)  
 김희열(2)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306) 드림팩토리(96) 박은원(9) 박정희(6)  
 박한경(9) 신지애(47) 영광원자력본부(145) 육군 제3033 부대 8중대 5소대(133)  
 이성수(60) 이은영(9) 이이만(9) 임민지(58) 정선주(326) 진인수(1)  
 천강재(3) 하중운(20) 홍명고등학교학생(8)

## ◆ 특별 후원금

2003년 9월 독일한인연합교회 685,228 최효열 330,000 코스닥위원회 200,000  
 10월 김중국 100,000 서울대학교병원 새마을금고 1,000,000 신예리 110,000  
 이종녀 1,000,000 이해진 250,000 익명 600,000 정영숙 200,000 정혜림 300,000  
 Steve Lee 107,236  
 11월 김보경 200,000 도현주 300,000 동아대학교의료원 500,000

## ◆ 후원물품 (2003. 9. 1. ~ 2003. 11. 30.)

고은석씨 굴1박스 권진욱 도서생활권(4) 김대홍 오징어 김상호 오징어 김은빈씨 굴1박스  
 김지연 김치 김현우 문화상품권 김희준 쌀 박찬중 쌀 화장지(3세트) 세제(3) 유연제(9)  
 손민기 과일 신현씨 감 신현주씨 선물세트 이상욱 삼푸(4) 비누(8) 주방세제(2) 치약(2)  
 익명 손목시계 인천성광교회 영천어린이합창단 학용품 생필품 임정수씨 오징어  
 조상현 김승오 음료수 조은정 의류(13) 천강재 도서생활권(3) 최영석 버섯 휴지 모자  
 코스닥위원회 소고기

##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 큰 도움이 됩니다.

2003년 겨울호는 (주)제일기린약품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